

참여형 보건지소 3기_건강활동가 과정

①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중구보건소 참여형보건지소 담당자및 방문사업담당자
- 인 원 : 약 15명
- 일 정 : 2016. 3.11-4. 29, 오후 1시 30분~ 4시 30분
- 강 사 : 한국의료사협연합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박봉희**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우성구**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출장소 **서원교**
- 교육내용
 - 건강개념/ 주민운동 총론
 - 주민 관계 맺기 /주민조직화 방법론
 - 소통하는 마을(주민대화/ 주민소통)
 - 우리 마을지도 그리기
 - 선진 민관거버넌스 탐방
 - 건강한 소모임 운영 및 사례
 - 우리 마을 화합하기_ 리더십
 - 마을문제 해결하기_건강실천 행동
- 추진방법
 - 현지3개 참여형보건지소 사업담당자 건강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시행
 -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방식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가 정체성인식
 - 건강지도자 발굴을 통한 건강마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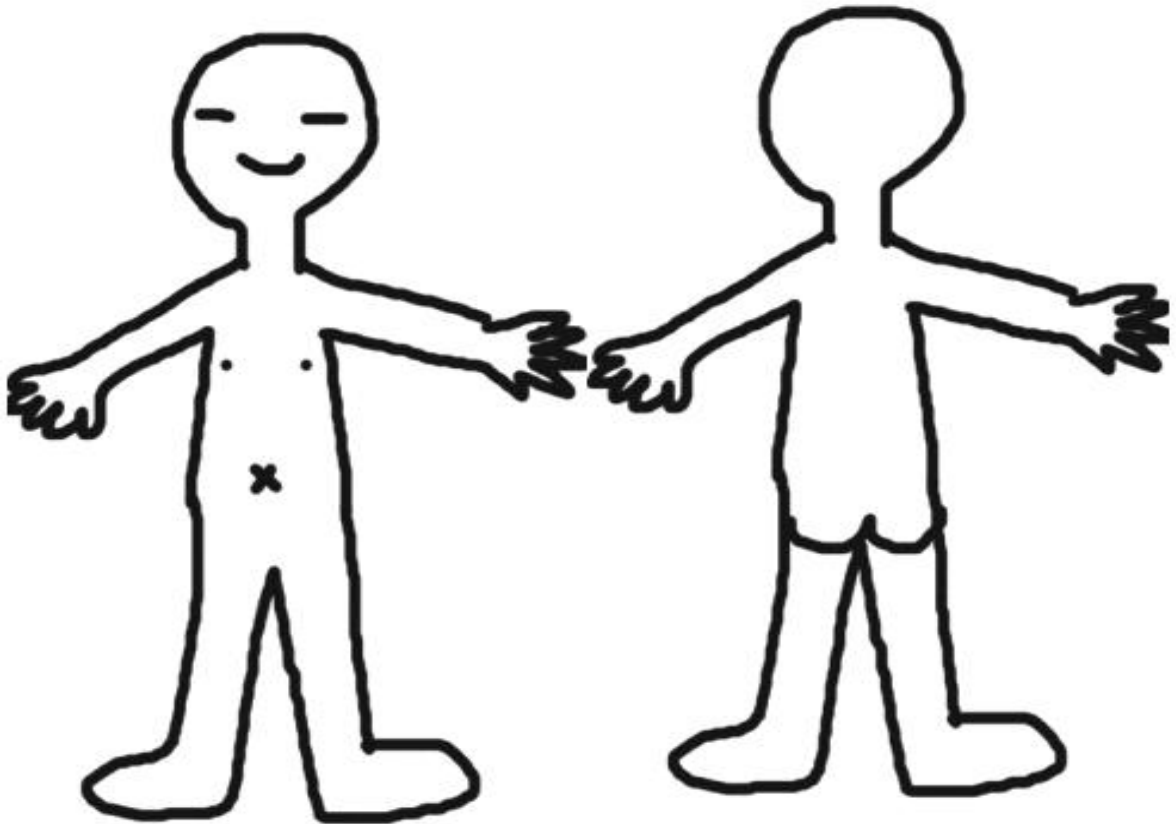
② 교육내용

교육시간	8일 (24시간)		교육정원	15명 이내	
교육대상	참여형보건지소 시행 동 건강 활동가				
교육목표	주민 참여 필요성과 배경 등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방법론을 익히고 보건, 행정 인식의 변화 및 건강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특징	자기 개발과 참여형 교육				
번호	모듈	교과목명	시간	교육내용	강사
1일 3/11	자기 개발	마음산책	1	몸-지도 / 교육과정 안내	박봉희 우성구
	주제1	참여형보건지소사업 이해	2	주민운동 총론 참여형보건지소 사업 배경 및 흐름	
2일 3/18	자기 개발	마음산책	1	나의 핵심가치 찾기 및 과제	박봉희 우성구
	주제2	건강활동가의 역할	2	건강활동가의 어려움과 고충나누기 건강활동가의 자세와 역할	
3일 3/25	자기 개발	마음산책	1	마음지도_내 안의 욕구, 감정 알아차리기	박봉희
	주제 4	건강의 주인	2	생활처방 , 상인회, 건강소모임 사례	
4일 4/1	자기 개발	마음산책	1	가족, 그 이름 , 영상 및 과제	박봉희 담당자
	주제3	민, 관 거버넌스 공유	2	광진구 또는 노원참여형보건지소 사례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례	
5일 4/8	주제5	주민 지도자는 누구?	3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주민 지도력 세우기 (영상)	우성구
7일 4/15	주제 6	소통하는 주민활동가	3	소통 게임을 통한 주민대화	박봉희
6일 4/22	주제7	걸어서 마을지도	3	탐방/ 강원도 사례 마을자원 찾기, 마을에 꼭 필요한 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들기	박봉희 서원교
8일 4/29	수료	건강활동가 거듭나다 마을속으로 쏙~	3	주민과 함께 하는 실천 행동만들기 사람, 사람이 맞이다/ 마을활동사진 전시회 커뮤니티 파티, 수료식	박봉희

<마음산책> 열리다_ 몸, 뇌지도

1. 내 몸의 소리
- 나에게 몸이란 ?

내 몸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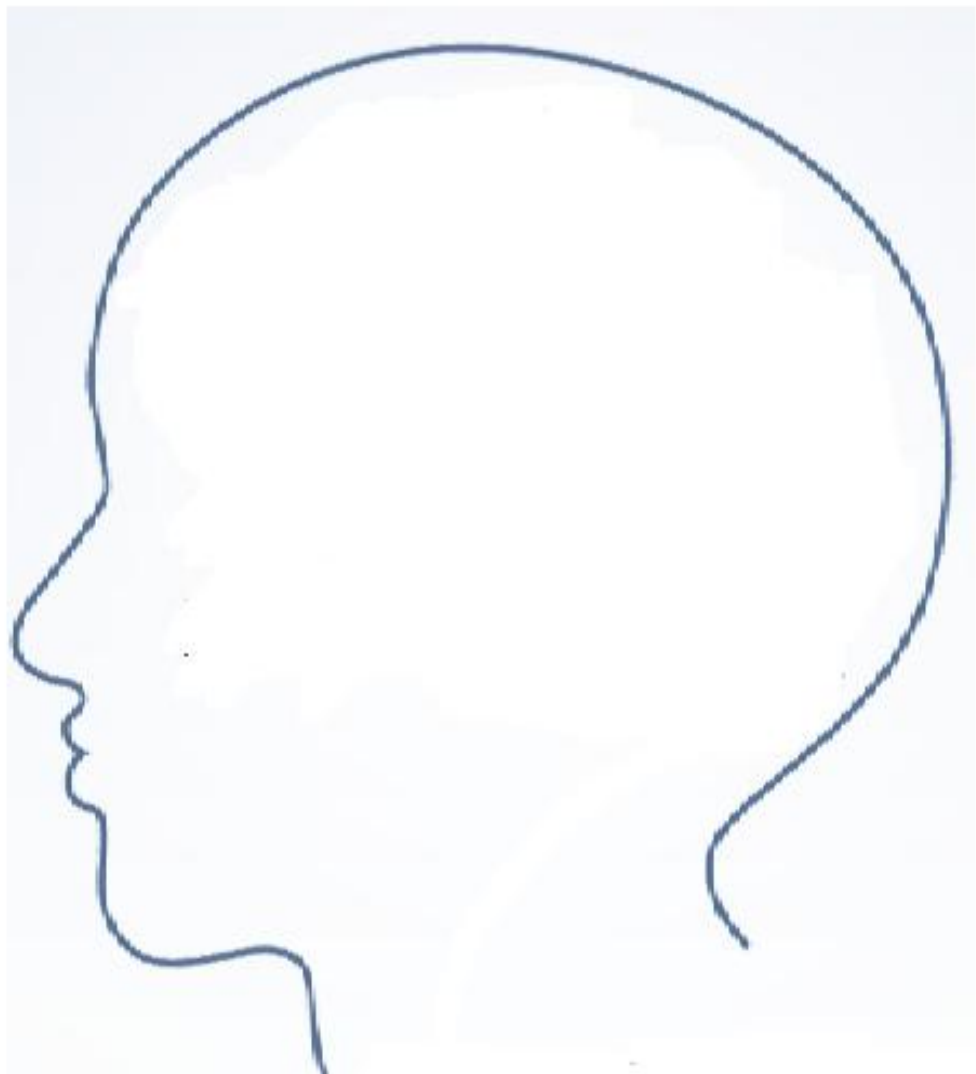


신체 감각을 표현하는 낱말 찾아보기

(단단한/물렁한/쭉시는/아픈/가벼운/무거운/긴장된/이완된/편안한/고통스러운/따뜻한/ 차가운)

2. 내 머릿속 아우성

내 머릿속 아우성



3. 교육에 대한 기대와 바람

한국주민운동 총론

I. 배 경

< 총론 I - 주민조직운동의 개념 >

- II. 주민운동이란 무엇인가?
- III. 주민조직화란 무엇인가?
- IV. 주민조직화, 왜 하는가?
- V. 주민조직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 VI. 주민조직화, 누가 하는가?

< 총론 I - 주민조직운동의 개념 >

- VII. 주민조직화의 기본 방법
- VIII. 주민조직화 유형
- IX. 주민조직화 4과정 10단계
- X. 현장상황과 조직화
- XI. 종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I. 배경

1. 1960년대 산동네와 판자촌에서 살고 있던 도시빈민의 삶을 직시한 가톨릭·개신교의 뜻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1968년,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69년, 도시문제연구소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조직화된 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솔 알린스키(Saul D. Alinsky)의 주민조직화(CO, Community Organization)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판자촌 주민 조직화 훈련으로 시작된 주민운동은 70년대 후반에는 전국에서 전개 되었다. 특히 80년대 서울의 목동에서부터 시작된 강제 철거에 맞서 삶의 자리를 지키려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민운동은 9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주민운동은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빈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공단지역에서, 농민을 위한 농촌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노동운동에 주요한 역할을 한 도시산업선교, 농민운동의 뿌리가 된 가톨릭·기독교의 농민회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주민조직화(CO)는 단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중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3. 지난 40년 동안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조직하여 투쟁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저항'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조'로 연결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하여 도전을 지속해 왔다. 생활정치운동, 협동공동체운동, 교육공동체운동, 공동체문화운동 등 주민운동의 도전은 시대의 굴곡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주민운동의 '창조'는 주민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으로 이어졌다.

4.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참여와 자치'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화두로 떠올랐다. 참여와 자치는 주민조직화(CO)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가치이다. 주민조직화(CO)가 사회 변화를 위한 필수적 방법이자 과정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참여와 자치' 뿐만 아니라 '지역' 개념이 사회변화 담론의 중심으로 등장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운동, 즉 지역 주민의 조직화된 운동이 사회변화의 토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사회는 '대안과 미래'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운동이 한국의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근원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5. 주민조직운동 총론은 주민조직운동에 대한 개념들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총론 I'은 주민조직운동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며 안내한다. '총론 II'는 주민조직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며 안내한다. 주민조직운동 총론은 주민운동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현장 경험을 성찰하며 미래를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현장에서 주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활동의 중심과 원칙을 분명히 하도록 도울 것이다.

◆ 총론 I - 주민조직운동의 개념 ◆

II. 주민운동이란 무엇인가?

1. 주민운동은 주민 스스로 행동하는 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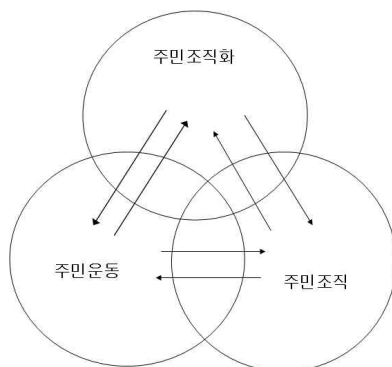
‘주민을 위한’ 운동은 주민운동이 아니다. 주민운동은 ‘주민에 의한 주민의’ 운동이다. 진정한 주민은 자신이 지역사회의 주민(住民)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주민(主民)이다. 누구나 주민이 될 수 있지만 모두 다 주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운동은 주민의식을 지닌 주민이 스스로 행동하는 운동이다. 자신의 삶과 행복과 미래를 남(他人)이 만들어 줄 수 없다.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일은 주민을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 뿐이다.

2. 주민운동은 주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행동하는 운동이다.

주민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변화를 위해서 혼자 시작할 수는 있어도 변화는 혼자 만들어 낼 수 없다. 주민의 힘은 ‘주민조직’을 통해 체계화되고 구체화된다. 자신들의 조직체가 없으면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주민운동은 반드시 ‘주민조직화’를 전제로 전개된다. 조직화된 주민이 자신의 조직으로 행동하는 것이 ‘주민운동’의 본질이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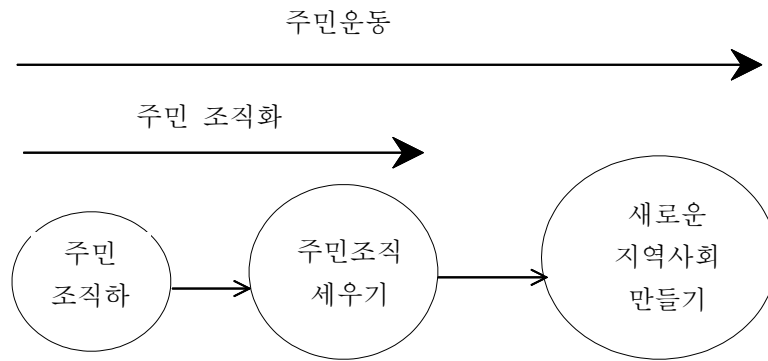
3. 주민운동은 주민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조직적인 운동이다.

‘운동’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행동하며 ‘변화’를 일으킨다. ‘지역사회 변화’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정치·경제·문화·교육·환경 등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일 주민조직이 친목과 이해관계 중심의 활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운동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는 운동이다. 또한 주민운동은 주민자치운동, 지역경제운동, 지역교육운동, 지역문화운동, 지역복지운동 등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4. 종합하면 주민운동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화된 힘으로 자신과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주민운동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주민의식, 주민주체의 관점에서 ‘주민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지역사회 만들기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동과 상생의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운동이다’, 자치·민주주의 관점으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켜나가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주민운동의 핵심 가치인 ‘주민 스스로’, ‘조직화된 힘’, ‘지역사회 변화’는 다양한 주민운동 개념에 전제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민운동은 주민 스스로 하는 운동이며, 주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하는 운동이며,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주민운동 개념의 흐름을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Ⅲ. 주민 조직화란 무엇인가?

1. 자신과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주민의식을 갖는 것이다.
조직화는 주민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민이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현실에 대하여 불평, 불만으로만 살아가거나 무관심하다면 그 어떤 변화도 없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지역사회의 주민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조직화는 주민이 주민의식을 가지면서 조직되고 주민(住民)은 진정한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주민(主民)이 되는 것이다.
2. 지역의 당면 사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다.
조직화는 주민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내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주민은 조직화 과정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처한 상황에 직면하며, 변화시킬 수 힘을 발휘한다. 주민은 이미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힘이다. 주민이 주민의식을 갖게 되면 잠재된 힘이 드러난다. 주민은 분명한 생각과 감정, 의지와 신념의 힘이 있고, 주민 자신이 만들어온 삶의 경험에는 당면한 사안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조직화는 이러한 주민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다.
3. 주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의 체계인 주민조직(People's Organization)을 만드는 것이다.
조직화는 주민을 모아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민 자신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적 구조’인 주민조직을 세워내야 한다. 주민조직은 주민의 힘이 모아지고 발산되는 통로가

된다. 주민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힘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자치적인 주민조직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민조직화가 아니다. 조직화의 일차적 결과는 주민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4. 여러 세력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다른 주민조직들과 함께 대중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조직화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힘을 모아내는 데까지 나아간다.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로서 주민을 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내외의 협력 가능한 여러 세력들과 자원을 조직하여 힘을 최대로 만들어야 한다. 협력자들, 인적 물적 지원자들, 양심적 세력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주민조직들과 연대하여 대중조직을 세우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IV. 주민조직화, 왜 하는가?

1. 의식화 - 주민의식이 힘의 근원이다.

의식화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식 의식함으로써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민은 대개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현실의 구조와 조건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심지어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주민은 조직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처한 삶과 지역의 현실을 올바르게 의식하게 되고, 그동안 자신의 의식이 왜곡되어 왔음을 깨닫는다. 자신과 지역사회를 이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는 현실에 맞서며 지역사회 변화를 위하여 행동하게 된다. 주민은 지역사회의 주인이자 변화의 주체로서 진정한 주민이 되어간다. 주민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주민이 되는 것이다. 이 주민의식은 지역사회 변화를 열망하게 하며, 지속가능한 주민운동을 창조하는 힘의 근원이 된다.

2. 세력화 - 모여진 힘(Power)이 변화를 만든다.

조직화의 최종 목적은 주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혼자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조직화는 필요 없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며 자신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다. 조직화는 흩어져 있는 주민 개개인의 힘을 뭉쳐 집단적인 힘이 되게 하는 것이다. 조직화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힘을 세력화하는 것이다. 이미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기성세력들이 자신들의 힘(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변화를 향한 주민의 노력에 우호적일 때도 있지만, 주민의 새로운 힘을 부정하거나 경계하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주민의 힘을 분산시키거나 분열시키기 위해 힘쓴다. 세력화된 주민조직만이 영향력을 확보하며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낸다.

3. 인간화 -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비인간화된 삶을 살아간다. 가난과 소외, 경쟁과 낙오, 차별과 배제 등이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시킨다. 조직화는 비인간화시키는 삶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주민은 자신을 억누르는 사회구조나 모순들을 직시하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된다. 비인간화시키는 것들에 저항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비인간화된 삶의 모습을 벗어나게 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고 미

래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존귀함을 찾으며 참다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조직화는 억눌린 인간을 인간화의 과정으로 안내하며 인간다운 삶을 향해 전개된다.

V. 주민조직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1. 주체적인 삶 -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주민 자신의 조직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인 주민은 대상화되고 해결의 주체에게 종속될 것이다. 주민은 더욱 의존적으로 되고 자신의 의식은 왜곡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힘과 노력에 의해 주어진 변화는 일회적인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주민은 그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조직화는 주민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 조직화 과정에서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조직화는 삶의 태도로서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2. 공동체 -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거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비인간화시키는 사회구조나 모순은 인간을 개인화시키고, 성공과 경쟁은 인간관계를 분열시킨다. 서로 협동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협동적으로 조직하며 공동체를 추구해왔다.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조직화는 개인화시키고 개별화시키는 사회에 맞서 인간의 관계를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다. 조직화는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3. 민주주의 -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가진 자들만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민 조직화는 지역에서부터 주민의 힘을 조직하여 사회적 영향력, 즉 민주적인 지역사회 권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조직화는 지역사회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조직화는 사회변화의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VI. 주민 조직화, 누가 하는가?

1. 주민(CP, Community People)

주민은 처음부터 어떤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난하거나 힘없고 소외된 주민은 더욱 그렇다. 주민은 주거, 교육, 건강에서부터 사회적 소외와 생존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

그렇다고 주민이 처음부터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인가? 주민은 일상생활의 무거운 짐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를 가지지 못할 뿐이다. 문제를 다 알고 있지만 좌절에 빠지거나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행동할 용기를 내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민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킨다면 주민은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 주민에게는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힘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어떤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스스로 주민조직을 세우고 행동할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 주민 지도자(CL, Community Leader)

주민지도자는 주민을 조직하고 주민조직을 이끌어 가는 핵심이다. 어떤 주민지도자이냐에 따라서 주민조직은 활성화되기도, 정체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주민지도자는 외부로부터 수입될 수 없다. 주민지도자는 주민과 같은 처지와 조건에 있는 주민의 일원이다. 주민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지도 그룹을 형성하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러나 선택된 지도자가 자신감이 없거나 온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여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지도력은 타고나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주민지도자는 조직화 과정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훈련하며 민주적 지도력으로 성장해 나간다.

주민지도자는 주민의 생각을 모으고 주민이 행동하게 한다. 주민지도자는 권위나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안내하는 사람이다. 나아가 주민을 살피며 하나하나의 내면의 성장을 돕는데 까지 안내한다. 주민의 생각과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서 ‘바른 공동선’을 유지해 간다. 때로는 주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 주민지도자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행동해야 한다. 주민지도자는 문제 해결사가 되어선 안 된다. 주민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게 안내한다.

3. 주민 조직가(CO, Community Organizer)

주민조직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을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려는 운동에 개입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민조직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협력하고, 촉진자의 역할을 주된 자기 생활로 여기는 사람이다. 주민조직가는 주민 속에서 움직이고 주민이 움직이도록 돕는다. 결국 자신의 역할은 점점 적어지게 하고 주민지도자의 역할을 늘려가며 주민이 드러나도록 애쓰는 존재이다.

주민조직가는 최우선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충분히 안다. 주민을 충분히 만나고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야 조직화 과정을 상상(想像)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핵심 임무는 주민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주민조직가는 주민지도자가 아니다. 주민지도자의 일거리를 떠맡아서는 안 된다. 주민조직가는 주민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강화하며 주민모임과 실천 행동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돕는다. 주민운동의 목표는 주민조직가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주민조직가는 조직화의 결과로 세워진 주민조직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쓴다. 지역사회 변화를 향한 전략 개발에 참여하고 주민조직의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조직화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존재로서의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다. 조직화의 궁극적 목적에는 주민의 의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 의식이 조직화 과정에서 현실화되어 자신의 지역사회를 스스로 변화시켜내는 자치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치력은 결국 지역사회의 영향력, 즉 정치력으로 작용한다. 조직화로 인해 형성되는 주민의 자치의식은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집단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선(공공선)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비전, 즉 보다 나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 총론 Ⅱ - 주민조직화 방법론 ◆

VII. 주민조직화 기본 방법

1. 대화 (Dialogue)

주민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 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한편 주민은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많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 대화는 주민의 잠재의식을 깨워 스스로 말하게 하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힘이 되도록 안내한다. 대화는 주민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돕고 행동을 구상하도록 돕는다. 또한 대화는 행동의 결과를 성찰하고 또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며 삶의 대안을 창조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대화는 ‘행동-성찰-행동’의 역동적 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주민의 의식과 삶의 변화를 자극한다. 때문에 대화는 조직화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며 조직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2. 행동-성찰-행동 (Action-Reflection-Action)

주민조직화는 주민 자신과 지역의 작고 구체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주민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성찰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리고 행동하면서 주민은 다시 평가하며 반성하고 성찰한다. 이와 같이 삶에 대한 성찰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낳고 행동은 다시 새로운 성찰을 낳는다. 주민은 스스로 성찰하고 행동하는 체험을 거듭하며 의식의 성장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간다. ‘행동-성찰-행동’(PRAXIS-이론적 실천 혹은 행동하는 이론)이라는 경험적 순환으로 자신과 세상을 배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지역적인 것에서 전국적인 것으로 관심사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3. 주민 행동(Mass-Based Action)

주민운동은 주민에 의한 주민의 조직화된 운동이다. 주민이 당사자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대중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조직화는 지속가능한 주민운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 조직화 과정에서 일부 소수가 다수의 주민을 대변하고 행동한다면 주민 대다수는 일부 소수에게 의존하게 된다. 일부 소수의 힘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만일 소수의 힘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변화의 수혜자가 되고 만다.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중적인 행동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간다.

4. 민주 지도력(Democratic Leadership)

주민을 움직이는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힘의 중심에 신뢰받는 주민지도자가 있다. 주민 조직화는 어느 한 개인의 지도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주민조직의 지도력은 집단적이며 그룹으로 움직인다. 주민지도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지명되거나 선출되기보다 조직화 과정과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고 민주적인 지도력으로 검증되고, 단련된다. 민주 지도력은 주민의 힘을 믿고 주민을 조직화의 과정과 결과의 주인으로 세워나간다. 민주 지도력은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일하며 주민이 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존재한다. 조직화는 민주 지도력을 세워내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VIII. 주민조직화 유형

1. 지역사회 이슈 조직화

지역사회 이슈 조직화는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당면 문제, 즉 이슈 해결을 위해 주민 당사자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강제 철거, 유해환경, 통학로 안전과 같은 지역적인 것에서부터 광우병소 수입, 대운하 건설 등 전국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역사회 이슈 조직화는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적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다수의 주민을 조직화하는 방법이다. 각종 주민대책위원회 활동, 조례제정운동 등이 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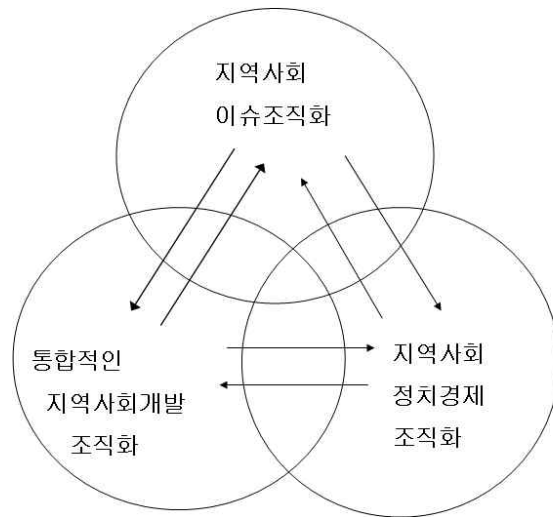
2. 지역사회 정치경제 조직화

지역사회 정치경제 조직화는 교육, 건강 의료, 자활 자립, 지역 문화 등 주민의 관심에 따라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정치경제 조직화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을 돕도록 하는 것이며 조직화 주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식을 이끌어 내고,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를 다루어 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조직화는 지역의 특정 영역을 목표로 삼고 그 영역의 특별 현안과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의 의견과 대안을 출발점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일자리 만들기,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지역사회교육공동체 만들기 등이 그 예이다.

3. 통합적인 지역사회개발 조직화

조직화의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를 정치, 경제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통합적인 지역사회개발 조직화는 근본적인 지역사회 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 구조,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이슈 조직화나 지역사회 정치경제 조직화도 결국은 통합적인 지역사회개발 조직화로 나아간다. 지역단위에서부터 총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 의제운동, 지역사회 비전개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지역주민연대 활동 등이 그 예이다.

4. 상호 연결되고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조직화



위 그림에서 보면, 주민조직화의 세 가지 유형은 상호 연결되는 주민운동으로 전개된다. ‘지역사회 이슈 조직화’를 경험한 주민은 자신의 주된 관심사를 드러내며 ‘지역사회 정치경제 조직화’로 나아간다. 또한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며 ‘통합적인 지역사회개발 조직화’로 나아가기도 한다. ‘지역사회 정치경제 조직화’로 시작된 주민운동은 긴급 이슈가 발생하면 조직화된 주민의 힘을 곧바로 ‘지역사회 이슈조직화’로 연결해 낸다. 또한 주민 자신의 관심사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시켜 ‘통합적인 지역사회개발 조직화’로 나아가기도 한다. ‘통합적인 지역사회개발 조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긴급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정치경제적 관심사가 드러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민조직화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유형의 주민조직화는 하나의 완결구조로 끝나지 않고, 상호 연결되고 순환하며 지속가능한 주민운동을 창조해 나아간다.

IX. 주민 조직화 4과정 10단계

과 정	단 계	핵심개념	주 요 내 용
I. 예비 과정	1. 현장 들어가기	현장 선택 예비 조사	조직가는 자신이 활동할 지역(혹은 현장)을 선택한다. 조직가는 지역(현장)에 대한 예비조사(관련 문헌, 관련 인사, 인터넷 등)를 실시하여 기초 정보를 습득한다.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화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며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2. 주민 만나기	관계 맺기 지역 알기	조직가는 지역(혹은 현장)의 주민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민과 관계를 맺어가며 주민의 처지와 특성, 욕구와 바람 및 주민 관계 등을 파악한다. 더불어 누가 지도력이 될 수 있는지 살핀다.
II. 준비 과정	3. 조직화 전략세우기	이슈 발굴 대안 마련	조직가는 주민 만나기를 통해 알게 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의 이슈를 선택한다. 선택한 이슈를 분석한 후 해결을 위한 잠정 대안(목표와 방안)을 마련한다.
	4. 지도력 형성하기	동기 부여 초동 모임	조직가는 지도력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다시 만나 이슈와 관련하여 대화(동기부여)하며 그들을 초동 모임으로 초청한다. 잠재 지도력들은 초동 모임에서 이슈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며 앞으로의 실천을 준비한다.
III. 조직 과정	5. 행동계획 세우기	조사 연구 계획 수립	잠재 지도력들은 이슈와 관련하여 문헌 조사, 방문 및 면담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연구 분석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조직가는 잠재 지도력 그룹이 목표 설정 및 행동 방침을 세우고 역할 분담을 잘하도록 촉진자의 역할로 돕는다.
	6. 주민 모으기	동기 부여 비공식 모임	잠재 지도력들은 스스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이슈와 관련된 정보나 문제의식을 나누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모임이나 실천에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 한다. 차 모임, 간담회 등의 편안한 (비공식) 주민 모임이 여러 차례 가능할 수 있다. 조직가는 잠재 지도력들이 주민 만남과 대화(동기부여)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III. 조직 과정	7. 실천하기	공식 모임 실천 활동	<p>잠재 지도력들은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만난 주민들을 공식 모임(공청회, 토론회, 때로는 추진모임, 주민 총회)에 초청한다.</p> <p>주민들은 잠재 지도력들이 공식 모임에서 제안한 활동 계획(집단행동, 프로그램, 행사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천한다.</p> <p>조직가는 잠재 지도력들이 의사결정 능력과 실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p>
	8. 평가하기	성과 점검 과제 확인	<p>주민들은 이 실천 활동의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낸다. 동시에 앞으로의 실천 과제를 확인한다.</p> <p>잠재 지도력들은 주민들이 모여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고 작업을 진행하는 촉진자가 된다.</p> <p>조직가는 잠재 지도력들이 조직화의 관점(주민의 힘 모으기)에서 평가하도록 도우며 주민의 관심이 계속 확장되도록 돕는다.</p>
IV. 조직 건설 과정	9. 성찰하기	배움 확인 가치 확인	<p>주민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깊이 있게 돌아보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삶의 욕구와 관심사를 풀어내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의 필요성(조직의 가치)을 공유해 나간다.</p> <p>잠재 지도력들은 주민들이 모여 성찰하는 자리를 만들고 작업을 진행하는 촉진자가 된다.</p> <p>조직가는 잠재 지도력들이 주민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직을 준비하는 마음먹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한다.</p>
	10. 조직세우기	조직 준비 조직 건설	<p>주민들과 잠재 지도력들은 지속가능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조직의 명칭, 목적과 목표, 조직구조와 체계, 공식 지도력 등을 준비한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주민 총회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주민자치조직(혹은 공동체)을 세워낸다.</p> <p>조직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 조직이 활성화(의식, 조직 발전) 될 때까지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현장 조직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p>

X. 현장 상황과 조직화

	잠재 지도력 그룹 이미 존재	잠재 지도력 그룹 아직 없음
이슈 이미 존재	1	2
이슈 아직 없음	3	4

1. 잠재 지도력 그룹이 이미 존재하고 긴급 이슈가 이미 확인된 현장

이미 지역에서 조직화 경험으로 인해서 주민지도력이 형성되어 있거나, 지역 단체나 기관의 활동으로 형성된 잠재 지도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 이슈가 드러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잠재 지도력들을 이슈해결을 위한 초동 지도력 모임으로 조직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지도력 모임을 활성화 시켜 행동계획 세우기 작업을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

2. 이슈는 이미 존재하는데 잠재 지도력이 없는 현장

이 상황은 긴급한 '이슈'가 드러나서 무엇인가 해결을 위한 노력이 긴급하게 요구되지만 이 이슈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지도력 그룹이나 주민 역량이 부족한 경우이다.

우선 조직가는 긴급한 이슈의 원인이나 배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모으고 연구한다. 정보나 자료의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조직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며 확인한다. 이 현장 조사 작업은 긴급 상황에 따른 시간적 제한 때문에 주민을 조직하기 위한 접촉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

조직가는 초기에 기존의 영향력 있는 주민을 만나 핵심 지도력 그룹을 빨리 조직하고, 주민 행동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

3. 이슈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잠재 지도력이 있는 현장

지역사회에서 여러 문제나 과제가 있지만 특별히 드러난 이슈가 없다. 그러나 지역 주민운동 단체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주민 활동 그룹이 잠재 지도력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조직가는 이미 존재하는 주민 활동 그룹을 상대로 일대일 만남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의 관심사나 이슈를 확인하고 그것을 지역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들을 지도력 모임으로 조직하고 관심사나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한다.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 이슈로 조직할 수 있고, 정치경제 차원에서 조직할 수 있다.

4. 이슈도 없고 잠재적 지도력 그룹도 없는 현장

이 상황은 처음부터 하나씩 조직화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경우이다. 충분한 주민 만나기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주민 관심사나 이슈를 선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략이 개발되면 지도력을 형성하며 주민을 조직해야 한다.

XI. 종합

주민조직운동 총론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아니다. 이 총론은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판자촌과 산동네에서 전개된 주민조직운동 경험의 총체이다. 이 총론은 현재에도 현장에서 확인되고 검증되고 있다.

이 경험에는 솔 알린스키(Saul D. Alinsky)의 CO(Community Organization) 방법론과 파울로 프레이리(Paulo Preire)의 페다고지(Pedagogy)로부터의 배움이 녹아있다.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조직화 경험으로부터 배움도 있다.

주민조직화는 그 경험과 배움이 나라마다 다른 역사와 사회현실에서 출발했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고 배제당한 사람들, 무시당하고 눌린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인간화와 새로운 사회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 총론은 지역이나 현장에서 주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는 좋은 도구가 되길 바라고, 조직화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좋은 지침이 되길 바란다. 이 총론이 확인하는 조직화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근원적인 원칙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화의 출발은 주민 자신의 이해관계이다.

주민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민감하다. 주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일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조직가는 주민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주민을 조직하는 출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처음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지만 주민은 ‘행동-성찰-행동’의 과정을 통해 점점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의 이해관계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이기도 하다. 주민이 느끼는 문제는 그 배경에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은 주민이 문제의 근원을 명확히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주민은 지역사회 이해관계를 보며 논리보다 감정으로 표출한다. 정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끈일 뿐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2.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조직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타인에 대한 불신, 반감 등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직가는 좌절하지 말고 주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조직가는 주민이 증오와 탐욕과 불성실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주민의 이러한 모습들은 주민이 겪어온 삶의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직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민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조직가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신념과 열망’이 견고해야 한다.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절대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 (Iron Rule - Never do to other what they can do for themselves Alinsky)

3. 주민은 교육과 훈련으로 조직된다.

사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조직부터 세우는 경우를 많이 본다. 주민조직화의 성공은 이슈나 과제, 목적과 목표, 주민지도력 준비 등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밟아 나감으로써 이루어진다. 지도자나 조직가의 경험이나 자기 과시, 자기만족으로 조직화하는 경우는 반드시 실패한다. 나아가 보편성이나 공공성이 약하거나 비전이 불분명해도 실패한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교육훈련으로 조직화의 목적과 목표, 비전을 분명히 공유하고 보편성과 공공성을 집단적으로 확보하는 것뿐이다.

교육훈련은 조직화 과정 전체에서 일어난다. 조직가가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삶과 지역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지도력을 세우고 지도력모임을 촉진하며 지도력이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지도력들이 움직이며 주민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문제의식과 실천 동기를 이끌어내며 스스로 행동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교육훈련의 과정이다. 충분한 교육훈련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조직화는 실패한다.

4. 주민조직에서 저항과 투쟁은 불가피한 행동이다.

주민운동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주민 스스로 대안을 창조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합리한 상황에 저항하고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주민조직은 때때로 구체적인 저항과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하고 권력과 사회구조가 주민의 삶을 유린한다면 저항과 투쟁은 불가피하다.

저항과 투쟁의 방법은 집회나 시위만이 아니다. 주민의 경험을 벗어나 전개되는 저항과 투쟁의 방법은 오히려 주민을 불안하게 한다. 주민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주민의 의식성장, 단결과 협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과제 2-1 주민(회원) 만나기 - 하나 되기

제출일시 :

훈련생 :

1. 개념

주민과 일체가 되는 과정이며 관계 맺기이다. 조직가는 주민의 삶의 처지와 조건을 알고, 주민의 성품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자신을 몰입시킨다. 이 만남을 통해 주민과 사귀며, 주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다.

주민과 일대일로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고, 집단에 끼어 들고, 주민과 함께 노동하며, 여러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고, 식사하고 초대하고 모임을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과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되며 주민과 주민이 살아가는 지역(현장)을 알게 된다.

2. 준비

2-1. 누구를 왜 만나고자 합니까?

2-2. 만남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3. 만남

3-1. 만난 주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3-2. 이 주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3-3. 주민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4. 성찰

4-1. 이 주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4-2. 이 주민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4-2. 이 주민과의 만남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인가요?

5. 계획

5-1. 어려움(4-2)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5-2. 이 주민을 다음에 또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겠습니까?